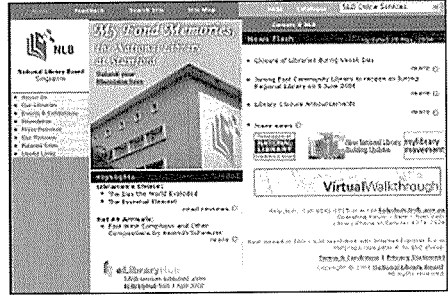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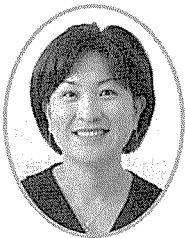


“ 정보·지식의  
자유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싱가포르도서관 ”



<http://www.nib.gov.sg 싱가포르국립도서관 홈페이지>



이 채 봉\*

머 라이언<sup>1)</sup>의 나라 싱가포르<sup>2)</sup>는 클린 & 그린 정책, 엄격한 규제, 더운 기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관광국가 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1965년 오랜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39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보통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도서관은 자동화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각각의 테마를 가진 도서관 설립, 정해진 규율 속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 삶의 중심에서 생활과 공존한다.

모든 도서관은 국가도서관관리국 소속으로서 국립도서관<sup>3)</sup>, 2개의 지역중심도서관(Regional Library), 20개의 지역도서관(Community Library)과 33개의 지역어린이도서관(Community Children's Library)이 있다. 이에 도서관정책을 일원화하여 국내의 도서관 네트워크, 디지털도서관, Bookdrop, 공공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각 도서관은 국가도서관관리국의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는다.

싱가포르국가도서관관리국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도서관은 전체 7,820,528권

- 1) Merlion, 1972년 공개된 상징물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모양을 한 동물의 형상. 상반신의 사자는 싱가포르(산스크리트어 로 사자를 뜻한다), 하반신의 물고기는 항구도시인 싱가포르를 상징한다.
- 2) 4개 국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사용하는 다민족국가로서 동남아시아 남부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있는 싱가포르섬과 그 부속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정식이름은 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수도는 싱가포르이고 면적 692.7km<sup>2</sup>, 인구는 450만명으로 중국계(76%), 말레이계(15%), 인도계(7%), 기타(2%)로 구성되어 있다.
- 3)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은 1823년 개관하여 운영되다 현재 신축이전 준비로 휴관중이며 2005년 개관예정이다.

\*충북중앙도서관 사서,  
seboyo57@hanmail.net

(점)의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자수 2,116,472명, 이용자수 31,752,227명, 디지털도서관 이용자는 217,963명이다.

도서관지원센터(Library Supply Centre)에서는 4개 공용어로 된 모든 자료를 일괄 선정, 수집, 정리하여 모든 도서관에 배분해주고 있으며, 각 도서관은 자료의 열람, 대출·반납, 참고봉사, 행사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관은 완벽한 자동화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자료에 부착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에 의하여 무인대출기(Borrowing)로 대출·반납이 가능하고 회원증 발급, 자료검색, 개인도서관이용정보 조회 등도 기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검색시 소장 도서관정보를 알 수 있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예약 및 상호대차 제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예약, 복사, 연체료 등 일부 서비스는 유료이며 현금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는 Bookdrop(자동반납대)을 통하여 인근의 편리한 도서관 어디에서든 반납할 수 있고, 반납된 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분류되어 우체국을 통해 자관(自館)으로 보내진다.

도서관의 위치는 대부분 주거지역, 쇼핑센터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운 기후의 영향으로 개관시간을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카페테리아와 소규모 공연장, 멀티미디어코너, 소파, 카펫 등의 시설을 갖추어 집안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도서관(www.eLibraryHub.com)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지식·정보 및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파트너십을 통하여 후원단체와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하고, 독서교육 도서관이용지도 자원봉사제도 등 학교와의 연계운동을 통하여 도서관이용의 생활화에도 역점을 둔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양한 문화만큼이나 다양한 주제의 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 특별한 테마를 갖고 있는 4개의 도서관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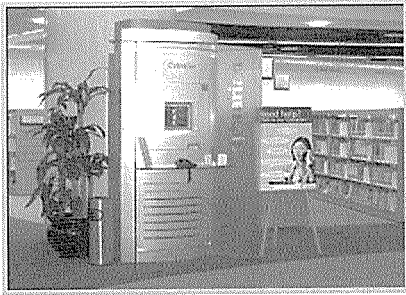


▲ 우드랜드지역도서관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아동·청소년 열람실

### 우드랜드지역도서관 (Woodlands Regional Library)

자연환경 친화를 주제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 지역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다. 전시 공간, 학습실, 열람실 등의 환경이 자연을 주제로 꾸며져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열람실에는 커다란 나무가 만들어져 그 밑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동화속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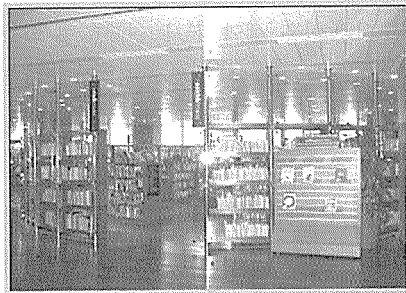
해외도서관 사정⑥



▲ 센강도서관의 무인시스템 Cybrarian

▶ **센강도서관 (Sengkang Commun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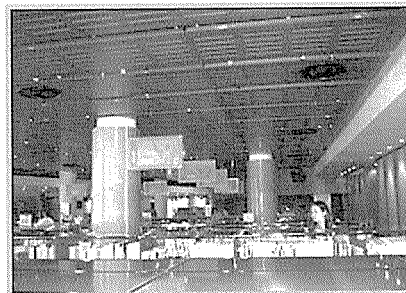
DIY(Do It Yourself)의 이념으로 설립되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회원증발급, 자료이용, 대출·반납 등이 전자시스템으로 이용자 스스로 이용 가능하며 무인전화시스템(Cybrarian: Cyber+Librarian)을 통하여 참고서비스를 지원한다.



▲ 오차드 도서관 · 백화점 내의 서점같이 세련된 실내공간

▶ **오차드도서관(Library@Orchard)**

싱가포르 최대 변화가 오차드거리의 백화점 내에 위치한 생활중심(Lifestyle) 도서관으로서 18~35세의 젊은 계층을 봉사대상으로 한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서점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여행, 팝문화, 건강·운동, 최신소설 등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언어별 만화자료, 향토자료 순환전시 코너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관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 오페라 하우스 내의 에스플러네이드도서관

▶ **에스플러네이드도서관(Library@esplanade)**

오페라하우스내의 예술전문도서관으로서 4개의 테마 공간(Villages)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악, 무용, 극장, 영화 영역별로 전문자료를 소장하고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악기연주실, 음악을 들으며 열람할 수 있는 코너 등 테마에 따른 독특한 구성과 배치, 색깔, 조명 등의 개성 있는 공간 연출로 이용자를 맞이한다.

현대의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의 자유를 보장하려한다. 또한 이용자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서관은 소장 자료와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도서관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싱가포르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도서관인들은 "Stretch"를 키워드로 도서관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싱가פור는 국가와 국민이, 도서관과 이용자가 함께 도서관을 즐기고 나누며 미래를 꿈꾸는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